



제목	The Sufi Doctrine of Rumi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World Wisdom
발행일	2005. 6. 16.
저자	William C. Chittick
출판도시	Bloomington
페이지수	120
ISBN 또는 ISSN	978-0941532884

내용 요약

루미의 시와 작품이 특히 영어로 많이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루미가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작가인지에 대한 반증이다. 루미는 사실상 미국 일반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 페르시아 수피 시인이다. 하지만 미국 내 일반 독자들의 요구나 눈높이에 부합하는 루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것은 루미 사상의 심오함과 수피즘의 신비스러움, 이슬람의 본질 등을 고스란히 담아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페르시아어로 쓴 루미의 시를 루미의 본래 의도에 맞게 대중적이면서도 수준이 있는 영어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치틱은 이 책에서 일반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미의 시를 골라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소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미 시의 아름다움과 마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치틱이 수피즘과 루미 시 연구와 번역의 대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준다. 루미 연구의 선도 학자로서도 유명한 치틱은 이 책을 통해 루미 사상의 내적 공간과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포문을 연다.

이 책은 서문과 전기적인 언급을 제외하고 총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별 내용은 제1장 수피즘과 이슬람, 제2장 신과 세계, 제3장 인간의 본성, 제4장 수피즘의 핵심이다. 중간 중간에 총 천연색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밀화가 들어있는 것과 각 주의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그래서 '삽화 판본'이라고 부른다. 이 책을 통해 루미를 알고, 그의 종교와 사상을 이해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함에 있어서 수피즘과 이슬람이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